

**먼길을 가는 사람은 때론 외로움도 견딜 줄 알아야 한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진실을 외면할 순 없다.
우리는 지금 역사를 쓰고 있다.**

- 노회찬, 「힘내라 진달래」, 225쪽 -

사무실 이사를 준비하는 어수선한 가운데 이 글을 쓴다. 어수선함 속에서 어쩐지 모를 외로움을 만난다. 지금의 시점에서 바라본 30년 전 1974년 11월은 침묵이 가득하다. 도서관계는 그 때 '아무 일도 없었다.' (그래서 이번 글의 제목도 최근 읽고 있는 책에서 뽑았다.) 《도협월보》, 《도서관》, 《國會圖書館報》가 기록한 내용 중에 되짚을 만한 '사건'은 없다. 국내 최초의 의학박물관이 개관했다는 소식이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서울 종로1가 광화문 '서적센터'에 '북코너'를 설치해 간행물을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소식,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출판문화회관 기공식(11월 27일), 부산일보사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부일(釜田)전국도서전시회(11월 11일부터 16일)와 한국잡지협회의 한국잡지문화상 시상식(11월 1일) 등이 대동소이하게 실려있을 뿐이다.

그 한 달 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필자로서는 딱히 소상하게 알 길이 없다. 공백이 있었다면 그대로 인정하는 수밖에. 물론 외형적으로는 조용했을지 몰라도 분명 그 해에도 올해와 같이 가을의 문턱에서 새로운 시절을 꿈꾸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다. 지금 우리

도 그렇게 이 11월을 보내고 있으니까.

다행스럽게도 《도협월보》 11월호는 1974년 '한국도서관통계'를 실고 있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안타까운 점이 한 둘이 아니다. 통계를 예년처럼 별도의 책자로 발행하지 못하고 기관지인 《도협월보》에 종합통계만을 게재한 이유는 협회의 예산사정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매년 발행해 오던 통계를 별도로 발행하지 못한 그 사정이 아련하게 다가온다. 잡지 말미에 '회비를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구가 그래서 더 가슴을 찢른다. 그런 마음으로 1974년 한국도서관통계를 자세히 살펴본다. 우선 통계를 소개하는 짧은 안내문에서 우리는 도서관 통계에 담긴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통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으로 기본자료 기입이 불확실하게 이루어져 온 점 등의 문제로 인해 도서관 현장의 종합적 파악은 물론 통계해석과 그 응용의 발전을 기할 수 없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사실 어떤 부문에서든 그 부문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치밀한 통계자료가 반드시


시 필요하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통계수집과 분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도서관계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정확한 통계의 수집과 분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30년 전에도 우리는 통계와 관련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 또한 안타까울 뿐이다. 아마도 이러한 통계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1970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 도서관통계표 표준에 관한 권고'에 부응하여 중전의 통계표 양식을 대폭 증보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협회 사무국의 의도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여 결국 제대로 된 통계표를 작성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서도 거론된 바 있는 '현장에서의 기본자료 기입의 정확성'이 선행되지 못한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적고 있다. 현장에서 정확한 통계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왜 현장에서는 정확한 통계를 확보할 수 없었을까? 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나 설명이 없어 따로 뭐라 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도 이러한 점은 통계 관련 업무 수행과정에서 늘 제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수집된 1974년 도서관 통계에 대해 《도협월보》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수가 전년도에 68개관에서 100개관으로 대폭 증가되었으나(이는 문교부의 공공도서관 설치 5개년 계획의 결과임) 장서수 등이 증가되지 않았으며, 특수도서관(이는 지금의 전문도서관이다. 필자주)의 경우, 매년 도서관수가 증가되는 경향이었으나 전년도에 비하여 금년도에는 6개관이나 줄었습니다. 대학도서관의 경우도 공공도서관과 특수도서관과 같은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통계결과가 초래된 이유는 그동안 통계표상에 포함되어 있

던 도서관중 당해년에 통계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전년도 통계를 기입하여 당해년 통계에 포함시켰던 것을 금년도에는 실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도서관은 통계내용에서 삭제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통계와의 비교에 있어서 특히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통계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이 문장만으로도 당시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럼 오늘날의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글썽 30년 후에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러한 평가는 나중에 남겨두고 당장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그려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만들고 실천방향을 정하는 일에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는 꼭 필요하다. 지금 마침 도서관 통계를 수집 중이다.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각 도서관에서 통계수치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그것만으로도 격세지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조사하는 항목이나 그 항목의 의미, 실제 통계수치의 활용 방안 등은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올해 한국비블리아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발표회(11월 19일-20일)에서 동원대학의 안인자 교수께서 '한국도서관 통계와 지표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한다. 그 동안에도 몇몇 관련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통계부문의 개선이 있지는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전보다 한 단계 발전한 실천적 제안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필자가 토론에 참여한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통계 작업과 관련해서 물론 정확한 지표를 만들어 내는 것이나 통계자료 수집과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 등의 조건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도서관 현장에서의 업무의 표준적 방식 도입과 이를 통해 지표

의 일반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은 역시 어쩔 수 없이 현장의 몫이기도 하다. 학계에서도 도서관 통계 문제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과학적 연구결과를 생산해 주기를 바라고, 협회도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도서관 현장의 실제적 모습을 잘 결합하여 앞으로 도서관 통계 수집과 활용에 있어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만을 거듭 확인한다.

《도협월보》 11월호에는 '한국의 교도소 도서관'을 주제로 한 최석두 당시 홍익대학교 사서의 글이 실렸다. 지난 10월 도서관대회 중에서도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정기관 도서관의 역할'을 주제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의 홍명자 교수가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 도서관계에서는 교정기관 도서관 부문과 같이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30년전 교도소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또 다시 아직도 제대로 그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한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과제만 또 하나 늘어났다는 아쉬움도 크다. 당시 교도소도서관의 사정은 재소자에 비해 장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한다. 아무튼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당시 교도소 도서관에 대해 필자(최석두)는 특별히 사서들에게도 교도소 시스템을 관찰하고 연구해서 교도소도서관의 구체적인 모형 및 발전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능동적 활동을 펼 것을 권하였다. 수감자들에게까지 도서관봉사를 확대하는 것은 교도소밖의 일반 사서들의 책임이자 사명이기 때

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한 확장된 인식이 요즘 왠지 더 그렇다. 내 일만으로도 지치고 힘들어 일반적인 사서의 책임이나 사명을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 현실은 현실을 짓누르고 있는 닫힌 구조를 깨고 나서서 자신을 더 넓은 세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는 새로운 방식의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참다운 봉사를 하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지식과 정보, 문화와 교육의 현장에서 나눔과 공유의 원칙에 근거해서 전문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전문가라면 그에 걸맞는 수준과 범위의 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교도소밖의 사서들에게 교도소 재소자를 위한 도서관봉사를 요구한 필자(최석두)의 혜안이 새삼 새롭다. 물론 이같은 원칙은 교도소 재소자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 전문가와 도서관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 우리 사서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고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매섭게 여름 장마비처럼 가을비가 내리고 난 후에 거리의 나무들이 한층 더 앙상해졌다. 그러나 그것은 상실이나 외로움이 아니라 새 봄을 준비하는 희망의 모습이고 그 어떤 추위도 견디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모습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다. 떨어져 바스라지는 낙엽을 밟으며 펜스레 가을을 타 본다. 살며시 차가워진 손을 내밀면 동료들이 주저없이 따스한 손을 잡아줄 것 같다. 12월 소식을 기대하며 이렇게 1974년 11월을 보낸다.  [글: 이용훈 협회 기획부장, blackmt@hitel.net]